

#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최

### 내달 26일부터 4일간 서천변 일원 축제 추진 방향 등 기본계획 논의

광양시 대표축제 중 하나인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4일간 열린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식)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10월 중 열리는 '2019년 광양 K-POP 슈퍼 콘서트',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미스트롯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일정 중복으로 초래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또 위원들은 광양문화원 일대에 소공연장을 마련해 축제의 파급효과를 서천변뿐만 아니라 구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숲, 한우, 도자기, 목공 체험 및 캠퍼스 운영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된 광양불고기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들을 추가해 시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2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광양시 대표 축제 중 하나이다.

올해 축제는 20일까지 축제 대행업체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8일까지



축제 세부계획 수립하며 30일까지 축제 참여업체 선정, 9월 초 축제 관련 안전·교통·환경·위생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영식 축제위원장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시 대표축제이자 큰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다주는 축

제인 만큼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앞선 축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보건소, 지역 사회 건강조사 실시

순천시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만 19세 이상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255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법정조사다. 건강조사는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조사를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해 사전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조사원에게 표본가구 방문 요령과 응대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빨간색 조끼 티셔츠 검은색 가방, 신분증을 착용한 지역사회건강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이후 대상자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를 측정하고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질병 여부, 의료기관 이용형태 등 17개 지표의 240개 문항을 1:1 면접방 식으로 진행한다.

순천시보건소 심기섭 건강증진 과장은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대상자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곡성군,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산란기 방제 총력

### 적기 약제 살포 당부

곡성군이 농림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의 성충기 적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은 방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갈색날개매미충의 성충 발생여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매실, 감, 사과, 배, 복숭아 등 대부분의 과수원에서 성충이 발견됐다.

갈색날개매미충 피해는 주로 성충이 나무의 어린 가지에다 산란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알이 가지 속에서 월동기를 거쳐 이듬해 봄에 부화할 때까지 물과 양분의 공급을 뺏어버

기 때문에 잎이나 과실의 생육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성충이 가지에 산란하기 전에 방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 중순에 부화해 약충이 되는데 이 약충이 다시 4차례 탈피과정을 거쳐 7월 중순 경에 성충이 된다. 이 성충은 8월 중순까지 산란이나 농작물에서 섭식하다가 8월 하순 이후 산란기가 되면 어린 가지를 찾아 9월 하순까지 산란한다. 바로 이 시기가 방제적기인 것이다.

곡성군은 방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예상되는 60개 작목반 1,175농가의 625ha 면적에 1

억 3천 7백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조사 결과 발생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밀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지난해 성충 산란기에 농가들이 적기방제를 잘한 덕분이다. 올해도 8-9월 성충 산란기에 과수원에 성충의 밀도가 높아지면 10-15일 간격으로 2-3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 등은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061-763-73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 운영

### 관내 초등생 대상...오는 19일부터 1박 2일 진행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고흥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를 진행한다.

뮤지엄 캠프는 분청사기를 주제로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위해 역사교육, 전시체험, 스포츠 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 어린이들이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또한 캠프 운영을 위해 고흥 한우리 고흥독서문화원과 전문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문화유산 교육 기회를 제공, 참가한 학생들이 분청사기가 가진 아름다움과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뮤지엄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관내 청소년들이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익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14일까지 초등학생 3학년부 6학년 학생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buncheong.goheung.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박물관에 문의하면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4명 모집

###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진화와 예방활동을 위해 15일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시·군(순천, 여수, 광양, 보성, 화순, 고흥, 담양, 구례, 곡성)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

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시·군·자치단체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합격자수가 없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선발된 근로자는 오는 9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구례군, 중증질환 예방 검사 업무 협약

구례군은 지난 12일 보건의료원 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관인 구례병원, 서원안과의원,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지원 사업 등 예방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 환자 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다는 데 공감하고 사전 검사 지원으로 중증질환 발생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구례군은 8월 12일부터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동맥 초음파, 안과 검사 등 합병증 검사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검사 대상자는 30세 이상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 환자 70여 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전 검사 무료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보성군 농특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200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보성군은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내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는 곳은 22개 시·군 중 3곳으로 보성군은 2009년 개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는 전문인력 2명이 배치되어 잔류농약·중금속 분석을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석기(ICP) 외 3종의 주요 분석장비를 활용해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분석항목은 잔류농약 276항목(엔드린, 디코폴, 알라팔르 등)과 중금속 7항목(납, 카드뮴, 비소, 구리, 수은,

니켈, 아연)으로 2019년도 검정계획은 잔류농약 200점, 중금속 400점이다.

지금까지 보성농자 군수품질인증제품 잔류농약분석 38점을 포함하여 총 476(잔류농약 89, 중금속 387)점을 분석·제공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시행하는 잔류농약 분석은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수확예정일 약 15일전 재배포장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1층)에 제출하면 2주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